고용노동부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6.(금) 18:00 (2026. 11. 7.(토) 조간)

정부와 퇴직연금사업자가 함께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퇴직연금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노동부장관·금감원장 공동 주재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개최
-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다양한 의견 청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11월 6일(금)** 16시 40분,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은행 하나·신한·KB국민·우리은행장, 보험 삼성·한화·교보생명 사장, 증권 미래에셋·NH투자증권 사장 등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사항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퇴직연금의 안정성과 적정 수익률 확보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중요한 변화의 시점**"임을 강조하며, "**노사정이 어렵게 이룬 합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김 장관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비하여 **영세 사업장 대상 안내 강화**,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금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연금 수령 관련 충분한 정보와 상품 제공**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청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들은 **현장 준비 상황을 공유**하며, **영세 사업장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체계** 구축,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인가**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다양한 연금상품 출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영훈 장관은 "퇴직급여는 **오랜 노동의 대가**이자 은퇴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버팀목**"이라며,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안정성과 수익성을 두루 갖춘 퇴직연금 생태계**를 조성해 **노동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안착을 위해 **수탁자 책임**에 걸맞는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고,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며, "아울러 **금융감독원**도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1월 중 발의예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목표**로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비하여 **영세 사업장 의견청취** 등 **현장 지원체계를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책임자	과 장	남성욱 (044-202-7554)
		담당자	사무관	이혜민 (044-202-7657) 김정아 (044-202-7689)
담당 부서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 연금감독팀	책임자	실 장	김기복 (02-3145-5180)
		담당자	팀 장	황찬홍 (02-3145-519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1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개요**

□ 개요

○ **(일시)** 11.6.(금) 16:40 ~ 18:00

○ **(장소)** 서울 로얄호텔 2층 로얄볼룸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61

○ **주요 참석자**

▲ **(노동부)** 김영훈 장관, 근로기준정책관

▲ **(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 **(근로복지공단)** 박승흡 이사장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사업자 9개사 대표이사

* (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은행장
(보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사장
(증권)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NH투자증권 사장

□ 행사 세부계획

일 정	주요 내용	비 고
16:40~16:45(`5)	ㅇ 개회 및 내빈소개	
16:45~16:51(`6)	ㅇ 인사말씀	장관, 금감원장
16:51~17:00(`9)	ㅇ 단체사진 촬영	
17:00~17:10(`10)	ㅇ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발제	고용노동부
17:10~17:55(`45)	ㅇ 퇴직연금사업자 의견청취	참석자 모두
17:55~18:00(`5)	ㅇ 마무리말씀 및 폐회	

※ **단체사진 촬영까지 공개**(이후 비공개 전환)

참고 2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씀** * 실제 발언은 달라질 수 있음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님과
근로복지공단 박승흡 이사장님,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노사정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全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는 오랜 노동의 대가인 퇴직급여를 지키고,
운용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퇴직연금은 지난 20년간 빠른 속도로 양적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명실상부한 노후소득
보장체계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제도개선이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노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무엇을 함께
준비해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께 네 가지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덜고, 퇴직연금 도입을 돕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사업장마다 언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안내해 주십시오. 특히, 퇴직연금을 처음 도입하는 영세 사업장이 제때 가입하고 적립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참여해 노동자의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기금형 참여를 준비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 역량과 함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동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탁법인에 엄격한 수탁자책임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가입자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실제 적립금 운용에 반영되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세 번째,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유인을 높이는
제도개선도 방안에 담았습니다.

가입자가 퇴직을 앞두고 수령 방식을 결정할 때 연금과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또, 다양한 연금상품도 충실히 제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계약형 퇴직연금 관련 규제도 개선합니다.
가입자에게 적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우수한 상품을
제공하고, 사업자의 책무도 충실히 이행해주십시오.

여러분께서 맡아주신 것은 단순한 자금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노동자의 땀과 노력,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것은 적립금이지만 지켜야 할 것은
노동자의 신뢰라는 점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들이 오랜 기간 쌓아온 퇴직급여를 든든히 지키고
정성껏 키워, 새로운 출발이 필요할 때 믿고 기댈
버팀목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담회가 정부 정책에 현장의 노하우를 채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3 **금융감독원장 인사말씀** * 실제 발언은 달라질 수 있음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장 이찬진입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님, 근로복지공단 박승흡 이사장님,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 기관장님들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본격적인 출발을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퇴직연금은 적립금이 500조원을 넘어 국민의 노후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금융자산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에 걸맞게 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가입자의 실질적인 노후소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은 우리 퇴직연금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금형 제도는 단순히 새로운 사업모델 하나를 추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의 운용성과를 높이는 한편, 가입자 이익을 중심으로 퇴직연금 운용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함께, 기금을 설립·운영하게
될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기금형 참여를 준비하는 퇴직연금사업자 여러분께
네 가지 사항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수탁자 책임에 걸맞은 이해상충 관리와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열사나 영업상 이해관계로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이
부당하게 우대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절차와
사후점검체계를 갖추어 주시고, 이러한 내부통제가
실제로도 작동하는지 경영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도입 이후 단기적인 외형 확대에 치중하기 보다는
운용성과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경쟁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운용성과와 위험, 비용을 충분히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여 주시고,
특별한 이익 제공 등 과당 경쟁으로 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지 않도록 특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셋째,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법인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재무적 기반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 초기에는 수익기반이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초기비용과 운영부담을 고려하여 재무적 여력을 미리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가입자가 노후자산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신뢰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입자의 이익을 위한 수탁자책임 활동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수탁법인의 운용·관리 재량이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수탁자 책임이 요구됩니다.
가입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에도 수탁자 책임 이행내역을 충실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금융회사들은 이번 기금형 퇴직연금을 단순한 사업확장 기회로만 여기지 마시고,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지탱하는 나무를 가꾼다는 사명감으로 제도가 뿌리를 내리는데 함께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융감독원도 근로자의 노후자산인 퇴직연금이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래오래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